

2015년 5월 25일 새벽 정리 말씀

사람이 걸 닦기는 쉬워도 속 닦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를 닦는다. 녹을 닦는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다. 행실을 닦는다.” 이렇게 닦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얘기이고. 그런데 닦아 놓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닦는 사람은 1000명에 하나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제께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닦아봐서 알고 영혼을 닦아봐서 아는데, 힘듭니다. 닦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닦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텅굴어 다니면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것이 가장 그제 절실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꾸 이리 텅굴리고, 저리 텅굴려야 닦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도 닦아지고, 육신도 닦아지고 결국 번질번질한 마음이 되게 되고, 번질번질한 행실이 되게 돼서, 마치 자연석이 돼서 비싼 고가가 되듯이 그런 입장과 같다

닦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완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잡니다. 일생을 두고 잡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닦을 때 쉽다는 마음을 먹고 닦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닦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끊어 버리고, 잘라 버리고, 그러면서 닦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들려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더 엄청난 빛이 나게 닦으려면, 다이아몬드같이, 금같이 닦으려면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마음도 닦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길은 끊기면 안 되고, 사방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다 연결돼서 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고, 이상 된 마음이 되고, 기쁨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닦고, 신의 성품을 닦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닦는 것입니다. 막히는 길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도 가다가 막히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꾸 막힙니다. 넓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을, 천주의 마음을 늘 품고 살도록 하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닦아놓은 마음은 막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통하고, 서로 어울리게 되고,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종합해볼 때 그렇게 나옵니다.

닦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그렇게 안 닦아졌습니다. 내려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살피고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닦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이리 저리로 닦으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 운동예술로 닦고, 음악 예술로 닦고, 또 나아가서는 학문의 세계로 닦고. 글씨는 큼직큼직하게 쓰고, 쪽쪽 써야 됩니다.

글씨 쓰는 것도 닦고, 그림 그리는 것도 닦고, 말하는 것도 닦고 닦아서 해야지, 말도 그냥 하면 안 됨

니다. 행실도 닦고, 모두 닦아야 됩니다. 집터 닦듯이 닦아야 됩니다. 집터도 닦으니까 집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렸다. 어떻게 만드느냐? 해 놓고 후회가 안 되게!

여러분들이 멋있게 인생을 닦아 보십시오. 마음도 닦고, 행실도 닦고! 말씀으로!! 자꾸 닦아야 여러분이 편하고, 나도 편하고, 개인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다 편한 것입니다. 전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 닦기, 행동 닦기에 전념을 다해서 골고루 닦아놔야 됩니다.

오늘도 부지런함으로 닦아놓고, 열심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저것을 하다보면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속의 예배라고 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려야겠다. 저녁 예배로 변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기 도>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닦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행실도 닦아서 철저히, 마치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제시간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시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세밀하고 예리하게 닦아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도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다 닦아야만 그렇게 척척 움직인다고 했으니, 모두 닦아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일생동안 들어야할 말씀이니 만큼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가 그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 민족도 세계도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는 데에 사고와 해됨과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불꽃같은 눈초리로 함께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불꽃같은 마음으로 지켜 늘 하늘과 하나 돼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정 일체 안 된 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행동일체 안 된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모두 살아서 움직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이상을 살피 주시고, 민족도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섭리사로 머리를 두고 구름 떼 같이 모두가 오게 하시고,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시대를 깨우치고,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를 알리는 데 전념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금자리를 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들 전체에게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히 열심히 닦아 나가서 더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 때문에 이들 가정과 개인들이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산새 들새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악인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기르시니!

천주의 부모가 되시고, 천주의 애인이 되시고,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되겠습니다.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